

2013년 SGI-USA

기초교학 시험

한국어 교재

SGI-USA 기초교학 시험 안내

- ❖ 머리말
- ❖ 니치렌 불법에서의 교학

I. 불법(佛法) 기초

- ❖ 신행학(信行學)
- ❖ 남묘호렌계교
- ❖ 십계(十界)
- ❖ 일생성불(一生成佛)
- ❖ 어본존
- ❖ 신심(信心)즉생활
- ❖ 숙명(宿命)을 사명으로 전환
- ❖ 난(難) 극복하는 신심(信心)

II. 니치렌 대성인의 생애

III. 창가학회의 역사

IV. SGI회장 강의 승리의 경전 ‘어서(御書)’ 에서 배운다

- ❖ 등용문어서
- ❖ 법화초심성불초
- ❖ 니치노부인답서

V. 소카 스피릿

- ❖ 일련정종(日蓮正宗) 종문의 3가지 핵심 오류

머리말

불법이 삶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올바른 기원이란 무엇인가? 남묘호렌게교의 뜻은? 숙업은 무엇이며 숙업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과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기 ‘기초교학’ 교재에서 찾게 될 것이다.

교학(學,學)을 연찬하고 그 심오한 뜻을 알아나갈 때 믿음(信,信)이 강해지고 매일 착실한 실천(行,行)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는 것이 항상 쉽지 않기 때문에 교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고무의 글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케다 다이사쿠 SGI 회장의 지도로 이 교재를 시작했다. 이케다 회장은 교학을 불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더욱더 환희에 차고 매일의 삶에 감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의 다섯 장(章)을 순서대로 읽거나 아니면 원하는 부분부터 읽을 수도 있다. 각 장(章)은 나누어져 있으며 불도수행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다.

신입회원이나 신심이 오래된 회원 모두에게 흥미있는 주제를 선정했으며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불법의 관점과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심도깊은 토론의 기폭제
- 미국 SGI 의 교학과 좌담회를 위한 참고자료
- 미국 SGI 에서 시행하는 교학 임용시험의 공식 자료

신심을 오래 했어도 이 교재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며, 대성인의 광대한 불법관을 배우고 자신과 지인에게 어떻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미국 SGI 교학부

니치렌 불법에서의 교학

다음은 이케다 SGI 회장의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한 회원이 창가학회 제 2 대 도다 조세이 회장께 “교학 강의에서는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가 정말로 감동적이지만, 집에 도착할 즈음엔 잊어버립니다.” 라고 말했다. 도다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머금고 “괜찮습니다. 몇 번을 잊어버리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그런 강의에 계속 참석하고 듣는다면, 지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반드시 여러분 생명에 남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강해지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

중요한 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를 매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기초교학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에 걸친 교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 때문에 긴장하거나 압력을 느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괜찮다. 나중에 그것을 이해할 때가 올 때, 여러분의 기쁨은 더욱 클 것이다. (월드 트리분, 2011년 2월 25일 자, 5쪽)



불법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한 교학은 성불을 향한 신심 수행의 일부분이다.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다는 그 이상의 것이다. 청년부들이 이 점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용기, 지혜, 끈기, 인내로 공부에 도전해 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창가학회의 젊은 후계자,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위대한 불법을 실천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존귀한 노력은 반드시 후세에까지 이어질 무량무변의 공덕을 가져다줄 것이다. (월드 트리분, 2011년 12월 16일 자, 8쪽)



신이란 강한 확신과 믿음이다. 즉 어본존에 대한 절대적인 신심이다. 행이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창제하고, 타인에게 대성인의 가르침을 알려가는 것이다. 학이란 모든 사람을 성불시키고, 묘법을 흥통하기 위해 어떠한 역경도 견뎌낸 대성인의 강력한 정신이 맥동치는 어서를 생명에 새기는 것이다.

신행학의 연속적인 노력이 광선유포를 이룩해 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신심은 일생에 걸친 것이며, 학은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신심을 깊게 할 수 있다.

교학을 통해 중요한 것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환희와 확신을 얻는 것이다. 즉, 조석 근행과 남묘호렌계교의 창제를 함에 더욱 진지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할 때 무너지지 않는 강한 용기를 이끌어 내고, 대성인의 가르침을 기억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심의 동지와 단결하여 광선유포를 위해 노력하는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지와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월드 트리분, 2011년 12월 2일 자, 5쪽)



대성인 시대부터 변치 않고 내려온 불도수행의 정수는 대성인 문하들이 같이 모여 어서를 연찬하며 신심을 깊게 하고 광포와 인간혁명을 하겠다는 발심에 있다고 하겠다.

대성인은 문하들에게 함께 어서를 읽으라고 자주 강조하셨다. 예를 들면 “이 서신을 뜻있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보시고 사색하시어 마음을 위로하시라.” (어서 961 쪽) 그리고 다른 어서에서는 가깝게 알고 지냈던 고우니와 센니치니에게 “이 글월을 둘이서 남에게 읽게 해서 들으시라” (어서 1324 쪽)라고 하셨다.

신심에서 친구는 함께 모여 어서를 크게 읽고 그 의미를 공부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결단코 인생을 승리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좌담회와 같다고 하겠다.

좌담회는 정확히 어서에 비추어 우애, 선의, 영감(靈感)이 가득한 창가학회의 활동이라 하겠다. (리빙 부디즘, 2010년 9-10월호, 13-14쪽)



창가학회 제 2대 도다 조세이 회장께서는 교학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다. 하나는 학문적으로 교학을 공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심을 통해 교학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제불이의 깊은 연대로 화합한, 도다 선생님과 나는 신심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탐구하는 교학을 바탕으로 광선유포의 모든 투쟁을 일으켰다. 그것이 바로 창가학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다. 적극적으로 광선유포의 전진에 노력하면서 니치렌 대성인의 교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회원들은 눈부신 승리를 이룩해 올 수 있었다. (월드 트리분, 2011년 12월 16일 자, 5쪽)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는 희망의 원천, 기쁨의 멜로디, 용기의 보검(寶劍), 정의의 깃발, 평화의 봉화이다. 어서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신심의 사제를 위한 가르침이다.

대성인께서는 천태대사의 ‘법화문구’ 를 인용하여, “신력(信力) 때문에 받고
염력(念力) 때문에 가짐” (시조강고전답서, 어서 1136 쪽)이라고 하셨다. 불법의
올바른 가르침을 수지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가장 숭고한 약속이다.

확고한 인생철학을 배운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 청년이 입정안국을 위해
결의하고 일어설 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대성인의 어서를 가슴에
새기고 신심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투쟁하는 보통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전진하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시즈더 데이(Seize the Day), 2010년 12월 17일 자, D 쪽)



순수한 마음으로

어서 연찬을,

어서의 가르침대로

오늘의 노력이,

영원한 행복의 인으로

(리빙부디즘, 2010년 9-10월도, 12 쪽)